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가 도착하였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기간 신약통독

사순절기간 동안 신약통독 마치신분들과 신,구약 필사 마치신분들 명단
*신약통독자: 김순예, 김천상, 김학섭, 남미숙, 서성희, 손은명, 조흥숙
최혜영, 한명숙, 홍순희, 김숙형

*신, 구약 필사자: 김창숙, 정미숙, 한명숙
혹 성경읽기표 제출 안하신 분들은 명단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5060 연합모임

5월 19일(주) 저녁 6시, 남플 장년 그룹이 함께 하는 ‘남플 5060’ 두 번째 단합 모임을 실시합니다.

• 설만한 물가 제3호 6월호 글 모집

선교사역부에서는 남플 교우들의 신앙 간증, 수필, 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설만한 물가> 3호, 6월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이야기 꽃이 향기가 되어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원고 제출은 5월 4일까지입니다.
*문의 - 최혜영 권사

• 제 1차 GMC 한미연회

일시 - 5월 6일(월)-9일(목)
장소 -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
참가자격 - GMC 한인 감리교회 대의원 및 초청인사
주요일정 - 각 위원회 사역보고, 코스타리타 GMC 총회 대의원 선출, 목회자 안수식 및 파송, 한미연회 신령직 연합사역 결정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김은혜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17,853.00

일반헌금 \$17,433.00	십일조: \$12,660.00 주일: \$1,126.00	남플사랑: \$320.00 감사: \$940.00 기타: \$2,387.00
건축헌금 \$30.00	약 정: \$30.00	
선교헌금 \$390.00	속 화: \$320.00	중남미: \$7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 P. the Poor in Spirit**
- O. Oneness in Lord's Hand**
- E. Encouragement in Christ**
-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부활절 넷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20장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7번
- ▲ 영광송 Gloria / 6장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우리는 기대하고,
중요한 하나님,
충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신약고백 Apostles' Creed / 찬송 Hymn / 64장 (통13) 기뻐하며 경배하세 (Joyful, joyful, we adore Thee)

기도 Prayer / 진애주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그의 빛 안에 살면 -
 기도 Prayer/ 김혜숙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그 크신 이름 찬양해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시편(Psalms) 119:1-8

< 내 마음에 두신 기쁨 >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joy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 파송찬송 Closing Hymn / 496장 (통260) 새벽부터 우리 (Sowing in the morning)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4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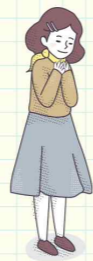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4월 21일	1부	소망교구	담당자	진애주권사	믿음교구
	2부			김혜숙권사	
다음주 4월 28일	1부	소망교구	담당자	이미셀권사	온유교구
	2부			최희정집사	

금주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4:7)
 *인용성구/ 눅17:32 창6:9 히11:7
 시119:4,5 담전1:8 시편4:7

실만한 물가 세 번째 이야기
 제3호 6월호 글 모집

선교사역부에서는 남플 교우들의 신앙 간증, 수필, 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실만한 물가> 3호, 6월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이야기 꽃이 향기가 되어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발간일: 6월 23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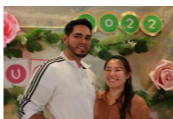
글모집: 5월 말까지

문의: 최혜영 권사

주최: 실만한물가 사역팀 (선교사역부)



금주 애찬 섬김

	금주 (4월 21일)		다음주 (4월 28일)
	배성임권사		Gorge. 김지현집사
	범사감사		범사감사
	믿음교구		온유교구

지난 고국의 총선에서 양당 후보자들 가운데 과거 내놓은 막말로 크게 고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이도 있고, 경선을 통과한 후보선에서도 살아남은 이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막말을 하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사람의 말에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고치리라” (사57: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신의 말씀대로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일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만데 있는 자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도 일하신다고 했는데, 만데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가까운데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평강하길 원하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37).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된 사례를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민20:4). 말은 입에 머물 때는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우릴 지배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불평만 일삼았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입술의 열매인 말이 중요한 건 그로인해 인생 길이 전혀 다르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눈으로 욕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하는 말은 입으로 하는 말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눅22:61,62).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 개의 시선에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여중의 정죄의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여중은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노력 본 반면,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을 부인한 그를 욕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자기 안전을 위해 당신과 거리를 두려한 것을 아셨으나,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중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며 실패한 베드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감과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썩떡쥐베리의 [어린 왕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길에서 ‘사막의 샘’ 같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갈한 목을 축이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인생 사막 길을 지닙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사45:7). 이 메시지는 영적인 사막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해 달 별은 물론, 온갖 생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도 말씀으로 짓고 환난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온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온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스스탄-임다윗)